

주민 애환 깃든 영산포역사, 문화체험관 탈바꿈

나주시 전시관 신축 개관식 역사 재현·기차체험관 2개동 다양한 볼거리·체험 콘텐츠

일제 강점기부터 2000년대 초까지 호남 지역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영산포 번영을 이끈 옛 영산포역이 문화체험전시관으로 재탄생했다. 나주시는 최근 옛 영산포역사 신축 현장에서 유병태 나주시장과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포역사 문화체험전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산포역은 1913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1951년 한국전쟁 중 공비침투로 역사가 소실됐다가 1969년 신축돼 호남지역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명성을 날렸다. 1984년 다시 신축됐지만 2001년 7월 호남선 복선 전철화 공사때문에 철거됐다. 2004년 3월 철거됐다. 영산포역사 문화체험전시관은 총사업비 29억원 등을 들여 2020년 9월 착공, 2022년 12월 완공했다. 연면적 553.17㎡에 영산포역사 재현 전시관 1

동과 어린이 기차체험관 1동으로 구성됐다. 시는 전시관 설계 과정에서 역에 대한 건축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폐역 전 영산포역 사진 속 모습을 최대한 재현해 전시관을 신축했다. 전시관 내부에는 영산포 명칭 유래와 역사, 호남지역 교통·물류의 관문으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영산포역 이야기와 옛 사진들, 주민들의 생활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시물이 설치됐다. '매표소', '역무원 복장 체험', '기관사·승객 VR 체험', '대합실 흥이 매점', '역무원 실제 물품 전시' 등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소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도 눈길을 끈다. 전시관 옆 등 어린이 기차 체험관은 '미니트레인 탑승 체험', '암벽 등반 놀이 시설', '보호자 대기실' 등 아동 전용 놀이 공간으로 꾸며졌다. 유병태 나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영산포 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공간이자 호남의 물류·교통 중심지 역할을 했던 옛 영산포역이 이제는 문화·체험·전시 공간을 갖춘 복합센터로 재탄생했다"며 "영산포 관광,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자 나주의 새로운 명소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영산포역사 문화체험전시관 내부. '역무원 복장체험' (왼쪽 위), '기관사 VR체험' (오른쪽 위), '역무원 물품 전시' (왼쪽 아래), '흥이매점' (오른쪽 아래). <나주시 제공>

"너의 꿈을 응원해"

나주 다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시초·중 신입생 운동화 선물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나주 다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시초등학교와 다시중학교 입학생 16명에 10만원 상당 운동화를 선물했다. <사진> 협의체는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활동이 제약됐던 아동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운동화 선물을 결정했다. 지시범 위원들은 'Run for your dreams, 너의 꿈을 응원해'라는 슬로건으로 운동화를 선물하며 학생들의 새 입학의 기쁨을 응원했다. 한 중학생은 "아쉬움 마음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생이 되는 저희들의 첫 발걸음을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손선 다시면장은 "새출발을 앞두고 설렘 가득한 학생들의 표정을 잊지 않고 학생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복지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호드러진 꽃 구경하고 상품권도 받아 가세요

강진군 병영성축제 이벤트

강진군이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리는 '제26회 전라병영성축제'와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 축제'를 연계해 강진사랑상품권 이벤트를 연다. 축제장 방문객이 받은 손뭉치를 강진읍 오감통 음악장작소 광장에서 돌림판 이벤트 운영진에게 보여주면 된다. 강진사랑상품권과 골드바 응모권까지 경품으로 걸린 '깡 없는 돌림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병영성과 금곡사 벚꽃길 등 봄 축제장에서는 손뭉치 배부와 함께 특산물 홍보, 풍선 배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읍내 오감통 잔디광장에서는 자전거 슝사랑 체험, 청자 낚시, 호패·소대 만들기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강진읍시장에서는 5만원 이상 물품 구매자에게 강진사·랑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해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배·사과 화상병 방제 약품 공급

국가검역 병해충...방제 의무화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배·사과 재배 농가에 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 지도와 약제를 공급에 나섰다. 화상병은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이며, 사과나 배에 병이 발생하면 세균에 의해 잎, 줄기, 꽃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인다 고사한다. 함평군은 화상병 사전 방제 의무화에 따라 이달 말까지 동계 방제를 실시하고, 4월부터 2회에 걸쳐 개화기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는 약제 사용시 반드시 정량을 살포해야 하며, 약제 저항성 예방을 위해 동일 성분 약제를 2회 이상 살포해선 안 된다. 또 화상병 농가 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화상병 의심 발생 시 대표전화(1833-8572)로 신고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농가를 방문해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를 지도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해야 한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염원 사전 제거를 위해 4월 말까지 집중 예찰을 실시하고, 현수 막 등을 활용한 화상병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추경예산 5966억원 본예산보다 16.5% 증액

장흥군은 최근 열린 장흥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회에서 5966억 원으로 확대된 '2023년 1회 추경예산'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장흥군에서 제출한 원안이 가결된 것이다. 본예산 5120억원보다 16.5% (845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증액된 예산에는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저출산 고령화 인구 대응 사업이 반영됐다. 연초 읍면 순방을 통한 주민 건의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도 우선 편성됐다. 장흥군 측은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 불편 해소 예산 등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은 ▲가족친화환경 조성 27억원 ▲장흥군 여흥 두드림센터 조성 20억원 ▲중흥촌 청년 자립학교 조성 22억원 ▲마을단위 LPG(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18억원 ▲우드랜드 야간경관 조성사업 6억원 ▲지능형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억원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 17억원 등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문화회관 1년 5개월여만에 새단장 개장

91억원 들여 공연장 등 개·보수

담양문화회관이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9일 개관식을 갖는다. <사진> 담양문화회관은 1991년 5월에 실내체육관으로 문을 연 이후 2002년 4월부터 문화회관으로 이용됐다. 지난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돼 2021년 11월부터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1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연장을 비롯한 창작실을 전면 개보수하고 외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했다. 개관식에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청소년 공연팀(6개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축하공연을 하고 농산품 판촉 행사도 이뤄진다. 담양문화회관에는 ▲공연예술 창작공간 ▲주민참여 문화창작공간 ▲작품 전시 및 기념품 가게 ▲문화광장 ▲대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사무실이 입주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이병노 담양군수는 "새롭게 문을 연 담양문화회관이 군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고품격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군민 만남의 광장이 문화창작 공간으로 전 세대가 아우르는 문화복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함평군, 인재양성 장학생 모집

219명...장학금 5억4700만원

함평군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을 모집한다. 함평군은 함평군 인재양성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상반기 선발인원을 확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인재양성기금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장학생은 고등학생(신입생 성적우수·복지장학생), 특기자, 대학생(지역인재·성적우수)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32명(신입생 20명·복지 12명), 특기자 12명, 대학생 175명(지역인재 150명·성적우수 25명) 등 총 219명이며 지원금액은 5억47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등학생 지원 인원을 추가하고, 대학생 지역인재 장학생에 관한 고등학교 졸업자를 포함한 장학금 지급 인원을 확대한다. 신청은 고등학생은 소속 학교로, 대학생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5천년 시간여행...화순 고인돌축제 준비 한창

4월21일~30일 고인돌 유적지서 공연·전시 등 40여개 프로그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순 고인돌 유적지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축제가 열린다. 화순군은 4월21일부터 30일까지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등 고인돌 유적지 전역에서 '2023 화순 고인돌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남을 넘어 전국의 대표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다. 개최 장소도 화순 남산공원에서 고인돌 유적지로 옮겨진다. 축제장 주변에는 봄꽃의 대명사인 유채꽃을 비롯해 크리산세밀, 수선화, 튜립, 야생화 등을 심고

조형물 24종 113점이 이색정원촌, 화순명품존, 정동기화순국보존 등 3개 테마로 꾸며진다. 축제 기간에는 공연, 전시, 체험, 판매 등 40여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 영국, 인도, 필리핀 등 해외 학술연사 3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전문가들이 고인돌 유적지의 관광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9일에는 세계거석테마파크에서 젊은 관광객들에게 고인돌 유적지를 홍보하기 위한 EDM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의 주제가 '봄꽃과 함께 나누는 5천년의 시간여행'이다"며 "이에 맞춰 고인돌 유적지에서 선사 시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구복규(가운데) 화순군수가 '2023 화순 고인돌축제'에 앞서 꽃 목욕장을 찾아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16일 '21세기장성아카데미'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 강좌

장성군이 진행하는 21세기장성아카데미 16일 행사는 김순은(사진)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강단에 선다. 21세기장성아카데미는 장성군이 28년간 운영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다. 매달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장성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달부터는 그간 중단됐던 식전 공연도 다시 연다. 강연은 별도 예약 없이 선착순 입장해 들을 수 있다. 장성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청강도 할 수 있다. 16일 강연에 나서는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행정학자이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지방자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나누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본격화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 강연이 자치분권 2.0시대 성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